



우리 종단을 말한다 |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 “생활·실천불교로 정도 구현”

한국불교는 국민들의 정서·문화와 함께 발전해온 생활종교다. 하지만 요즘 불교는 법맥을 중요시 하고, 신중수행만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 일부에게만 받아들여지는 ‘어려운 종교’가 됐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는 생각이 분열을 낳았고, 그 분열이 오늘날 종교편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생활불교조계종(종정 정관)은 이를 타파하고, 대승불교의 교리를 통해 생활·실천불교정도를 구현하고자 2003년 10월 창종했다. 한국불교 본연의 모습을 찾아, 대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

생(上求菩提下化衆生), 호국안민(護國安民)을 실천하고 있는 불문이다. 생활불교조계종은 생활·실천불교를 구현하기 위해 종단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7년부터 관법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국주지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단소속 스님들을 위해 창종 직후부터 매년 3회 이상 생활·



도선 스님.

포교방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수시로 진행되는 소인 스님회의 역시 종단 내부화합을 위한 한 방편이다. 생활불교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한 해외포

### 교리 통해 생활·실천불교 정도 구현코자 매년 스님 위한 생활·포교방편 교육 실시

려운 종교가 아닌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불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본 종단은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滿)의 ‘어떤 사상이나 관견에 결집없이 이(理)와 사(事)가 한결같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근본교리로, 280여 명의 스님·법사가 240여 개 종단 소속 사찰에서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다. 특히 총본산 관법사(경북 영양군 수비면)는 경내에 폭포가 흐르는 천연사원에 위치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사찰로, 생활불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태고종풍을 선양해 상구보리화중

교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많은 종단 소속 스님들이 일본·중국·하와이 등에서 사찰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종단은 앞으로 2011년까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종도 교육을 위한 교육관 건립, 포교 기본지침서를 발간해 종단 내실을 보다 확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교구의 역할을 활성화해 지역 복지사업등 참여의무화 하는 등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한국생활불교조계종으로 자리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총무원 (054)682-5808

정리=김진성 기자

바로잡습니다 705호 대한불교대승종 기사에서 종정 천관 스님을 천광 스님으로, 창종연도 1998년을 1988년으로 수정합니다.

##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 봉행

진각종, 서울 탐주심인당·대구 희락심인당 삼매아계단



11월 10일 진각종 탐주심인당에서 열린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

진각종(총무원장 회정)은 11월 10일 서울 탐주심인당 삼매아계단에서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도흔 총인을 비롯한 7증사와 3아사리가 참석한 이번 불사는 계정, 계제이운, 헌화, 설계단문, 청계, 성취계제, 설계상, 관정 및 가지, 입지계, 법어 순으로 봉행됐다.

전계아사리 성초 정사는 법어에서 “법신의 대광명 두루 비치어 사방에 충만해 다함이 없다. 진인행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정계를 받으니, 계행은 능히 보리의 근본을 열었다”며 “금생에 변함없이 마음에 새겨 항상 선지식의 친근함을 얻어 불·법·승을 깊이 믿으니 모든 공덕 구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계자 대표 유태광씨는 입지계에서 “이제 계를 설해 받았으니 금생으로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 견고히 가지고 지킬 것”이라며 “차라리 신명을 버릴지언정 물러나지 않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수계과장불사는 총 112명이 수계를 받아 갈마 아사리에게 금강선, 천계 아사리에게 금강수를, 교수 아사리에게 계첩을 각각 수여받았다. 수계자 임명준씨(45·법명 지연행)는 “수계관정을 받음으로써 진짜 불자가 된 것 같은 기

분이 든다”며 “앞으로 진각종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부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회정 정사는 “밀교에서는 관정을 받지 않으면 진언(眞言)과 인계(印契)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관정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수계자들은 보살십선계 수계관정을 통해 불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살십선계는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라 △정정한 마음으로 투도하지 말라 △정결한 마음으로

사용하지 말라 △정직한 마음으로 마어하지 말라 △진실한 마음으로 기어하지 말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악구하지 말라 △화합하는 마음으로 양설하지 말라 △보시하는 마음으로 탐욕하지 말라 △환희하는 마음으로 진애를 내지 말라 △지혜를 밝혀 사견을 내지 말라 등 10가지 계율이다.

한편 진각종은 11월 11일 대구 희락심인당 삼매아계단에서도 보살십선계 수계관정불사를 봉행했다.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 천태종 평화통일 사진전 개최

황룡사 시작으로 전국 사찰 순회전시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1월 9일 인천 황룡사에서 개성 영동사 낙성 3주년 기념 ‘남북평화통일기원 문화교류 사진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 안상수 인천광역시, 탤런트 김혜옥씨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법회는 스테이프 커팅 △상월 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개식사 △총무원장 법어 △축사 △통일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정산 스님은 법문에서 “상월원각 대조사의 3대 지표에는 남북이 평화롭게 살기 바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사진전은 남북 평화 정착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전은 천태종과 북측 개성 영동사 북원위원회의 2002-2005년 영동사 북원과정과 2007년 영동사 성지순례 등 50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됐다. 사진전은 황룡사에 이어 천태종 전국 사찰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영산수륙대법회 봉행



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10월 31일 충주중앙당에서 영산수륙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정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법회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영혼의 안락, 불국정토실현을 기원했다.

김진성 기자

## 국민화합 기원 천태예술제 개최

11월 30일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서

음성불사를 통한 문화포교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천태예술제가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했다.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11월 30일 오후 4시 30분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국민화합 기원 제10회 천태예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예술제는 금강 무용단 20명이 1부 불교장작무용 ‘하늘꽃’을 공연하고, 서울·경기 천태연합합창단 250명과 △천태전통법배보존연구회 △성악가 김재일(버리튼) △L.M.B 중창단 △한양대 국악과 학생 등이 2부 교성곡 ‘보현행원송’ 공연을 장엄하게 펼친다.

광덕 스님이 작시하고 박범훈씨가 작곡한 ‘보현행원송’ 공연은 2007년 2월 기획한 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년의 오디션을 거쳐 출연자를 선정했다. 또한 다수의 공연인원에도 불

구하고 2008년 9월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 연습을 하는 등 공연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예술제를 기획한 관연 스님(문화국장)은 “천태예술제는 지난 9회동안 음악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설하는 대중적인 공연으로 문화포교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공연은 보현보살행을 실천해서 참생명의 가치를 높이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고 행사와의 취지를 설명했다.

스님은 “열번째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보다 수준 높은 불교예술창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예술제가 사부대중 화합과 국제민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관문사는 11월 12일부터 선착순 1000여 명에게 초대장을 무료배포하고 있다. (02) 3460-5300 김진성 기자

## 천태종 정기총회 개최

천태종 종의회(의장 도정)는 11월 23-30일 제82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009년 종단 예산 및 산하 기관의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는 이번 총회는 개회와 함께 구인사에서 각 부과별 심의를 시작하며, 본회의는 29일 오전 9시 인광당 종의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예산심의회는 각 부과별로 진행되며 총무분과위원회가 23-25일 △총무원 총무부·교무부·교육부 △금강대학교 △금강신문, 법제분과위원회가 24일 △총무원 사회부·규정부 △감사원, 재무분과위원회가 23-24일 △종단 예산안 △총무원 재무부 △상월 원각대조사 탄신 100주년기념사업회 △사회복지법인 △동해건설 △나눔머리하나되기운동본부 등의 예산안과 업무계획을 심의한다.

김진성 기자

## 제2회 천태종 창작등 경연대회

창작도, 활용성 등 4개 부분 심사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은 ‘제2회 천태종 창작등 경연대회’ 출품작을 공모한다.

이번 대회는 천태종 신도들 독자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소재, 작품 수에 제한 없이 천태종단 이미지에 부합되는 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최우수상 1팀에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우수상 2팀에 상장 및 50만원이 수여되며, 심사기준

은 △창작도 △활용성 △디자인 △완성도 등 4개 부분이다.

참가를 원하는 대상자는 천태종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은 후, 총무원 교무부에 12월 5일까지 방문·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12월 10일 천태종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043)420-7309

김진성 기자

수제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고무신코 만행화

**방한용달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3-1편**

- 가격 : 90,000원
- 규격 : 220-255mm
- 색상 : 회색, 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지압감항**

- 가격 : 15,000원

최고의 선물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속설에 의하면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오대산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시는 스님들은 혈액을 맑게하여 원기와 기력을 돋우고 관절을 보호하며 몸의 냉기를 제거시켜 혈액순환이 잘되어 추위를 이겨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가목 차를 드시며 수행하고 산승이 금강산 유점사에서 득도하신 고승으로부터 고유전래의 비법을 전수 받아 청정한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시주 불자님께서 요청하시면 보시합니다.

대진 승 두손 모음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출연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031)775-1285

##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승무복, 모듬북·장고·징·팽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디롭습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동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